

『이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정해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회장,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hschung@cuth.categu.ac.kr

다사 다난했던 금년도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2002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이루었고,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체육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꿈★은 이루어진다』였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계의 한해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도서관계에도 올해는 정부로부터 각급 도서관 발전 정책이 발표되어 어느 정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실현되는 내년부터는 우리 도서관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기쁜 마음 보다 우려의 마음이 앞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해방이후 처음으로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유효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에서 학교 단위로 독서를 생활화하고,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중심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자기 주도적 학습기반을 마련해 주는 훌륭한 교육수단인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 단위로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관이 주도하여 학교도서관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1952년 3월 진주여자중고등학교에서 최초의 현대식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반개가식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사서교사들과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지원해준 몇몇 교장선생님들의 노력으로 1960년대까지는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학 입시 위주로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뒷전으로 밀려나 유명무실하게 학교의 시설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발전 정책에 전국 10,172개 초·중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이 미 설치된 곳은 20%정도인데,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사서교사는 8천여개의 도서관에 153명 뿐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학교도서관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째는 전담 사서교사이고 둘째는 학교 운영의 책임을 지는 학교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인 학교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관리인력(사서교사)이 배치되어야 좋은 학교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인력의 확보가 예산문제와 직결되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교원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올해 22명의 전담 사서교사를 배치했고 내년 3월에 11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2006년까지는 도내 23개 지역교육청별로 초·중·고에 각 1명씩 배치하여 고 이들 사서교사는 해당 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별로 업무 지원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방안은 10월 14

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제시된 1개 시·군 교육청에 최소 1명씩의 사서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보다는 인원이 수가 많으나 시·도 교육청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검임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계약제 사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획기적인 전담 관리인력(사서교사) 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발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장의 역할이다.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이 창의적이고 동적으로 발전되기 위한 기술봉사의 실현자이며, 학교도서관에 대한 리더십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들이 각 민간 단체들의 활동 실적을 남기기 위한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감이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적을 위주로 실시하는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 실질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번에 걸쳐 실시되는 학교장을 위한 연수라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학교장들의 관심과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심도있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우리의 교장 선생님들이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의 선봉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난 11월 9일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서 대구 시내의 중·고등학교의 학생 도서부원들과 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 도서관학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학교도서관 축제제가 열렸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좋은 학교도서관을 만들자고 토론회도 가졌고,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거리 캠페인도 하고, 독서퀴즈도 하고 책표지 전시회도 하는 등 어린 학생들이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올해는 작년보다 축제가 더 신이 나는 것 같았다. 아마 좋은 학교도서관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때문일까?

그러나 아직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는 미흡한 부분이 산재해 있다. 예컨대 10,172개 학교중 학교도서관 미설치 학교가 통계상으로는 20%정도(1,991개교)로 되어 있으나 이 통계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그러나 그간 우리 학계에서는 좋은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학교도서관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사서교사 양성을 등한히 한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까?

2년여 전부터 순수 민간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은 그동안 그들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던 우리의 학교도서관에 서광을 비쳐주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일들을 바탕으로 금년에 계획들이 마련되고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평생학습사회 및 주 5일제 수업에 대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문화공간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여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정부주도의 정책이 나온 것만도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정책을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조사, 분석 연구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과 개별학습 방법을 습득하고 지식정보 기반사회에 필요한 독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훌륭한 계획이라고 해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금년에 마련된 여러 가지 도서관 관련 정책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모두 발휘한다면 2002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서관도 지식기반 사회의 중심 기관으로 인정받고 이용자 모두에게 존경받고 정신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